

- 주요 뉴스: 뉴욕연은 총재 50bp 금리인상 시사, Citi는 네 번의 ‘빅 스텝’ 예상
 - 미국 3월 미시건대 소비심리, 전쟁 및 인플레이션 우려로 11년여 만에 최저
 - 미국과 EU, 對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 협력키로
 -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으로 국제원유 공급 우려 심화
- 국제금융시장: 미 연준의 공격적 금리인상 예상 속 금리 급등, 주가 상승, 달러 보합

주가 상승[+0.5%], 달러화 보합, 금리 상승[+10bp]
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금리 급등에도 불구하고 저가매수 등으로 상승
유로 Stoxx600지수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주시하며 소폭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매파적 성향 강화 속 보합
유로화 가치는 0.1% 하락, 엔화는 0.3% 상승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공격적 긴축 예상 등으로 큰 폭 상승
독일 10년물 국채 금리도 6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25.8원, +6.4원) 0.5% 상승, 한국 CDS 보합

		3/25일	3/24일	전일대비			3/25일	3/24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543.1	4,520.2	0.51%	국채 금리 10y	미국	2.47%	2.37%	10bp
	유럽	453.55	453.07	0.11%		독일	0.59%	0.53%	6bp
	중국	3,212.2	3,250.3	-1.17%	CDS 5y	한국	29bp	29bp	-
	일본	28,150	28,110	0.14%		중국	62bp	62bp	-
	한국	2,729.9	2,729.7	0.01%	위험 지표	EMBI+	536.33	552.42	-2.91%
환율	달러지수	98.79	98.79	-		VIX	20.81	21.67	-3.97%
	유로화	1.0983	1.0997	-0.13%		WTI유	113.90	112.34	1.39%
	엔화	122.05	122.35	0.25%	원자재	구리	468.60	472.9	-0.91%
	위안화	6.3662	6.3678	0.03%		금	1,958.3	1,957.7	0.03%
	원화	1,218.8	1,218.8	-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- 뉴욕연은 총재 50bp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, Citi는 네 번의 '빅 스텝' 예상
 - 존 윌리엄스 총재는 통화정책이 민첩해질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를 50bp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언급
 - 또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, 통화정책은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기대를 방어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언급, 다만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안정돼 있다고 강조
 - 연준 고위 관계자들의 잇따른 매파적 발언으로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장중 한때 2.5%를 상회하며 '19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
 - Citi는 향후 네 번의 FOMC(5, 6, 7, 9월)에서 연준이 연속적으로 빅 스텝(50bp)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하고, 인플레가 극심한 수준을 나타낼 경우 한 번에 75bp 인상도 가능하다고 평가
 - BofA는 6월과 7월에 각각 50bp 인상하고, '23년 5월에 정책금리가 3~3.25%에 도달할 때까지 나머지 모든 회의에서 25bp 인상을 예상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- 美 3월 미시건대 소비심리, 전쟁 및 인플레이션 우려로 11년여 만에 최저
 - 3월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는 59.4로 전월치(62.8)와 예상치(59.7)를 모두 하회. 향후 6개월간의 경기를 예상하는 기대지수도 54.3으로 전월치(59.4)를 큰 폭 하회
 - 미시건대는 경기를 나쁘게 보는 시각은 대부분 인플레이션 탓이라고 평가하고,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'81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
- 미국과 EU, 對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 협력키로
 - 미국은 금년말까지 EU에 최소 150억 입방미터 규모의 천연가스를 추가로 공급하고, '30년까지 500억 입방미터(러시아發 공급의 1/3)의 공급을 보장하는데 노력하기로 합의(※지난해 미국으로부터의 LNG 수입규모는 220억 입방미터)
 - 아울러 미국과 EU는 우크라이나와 EU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TF를 구성하여 LNG 공급을 다변화하고, 천연가스 수요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

- 독일은 오는 6월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절반으로 줄이고, '24년 중반까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자체 계획을 발표
- 한편 러시아가 원유와 가스 수출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, 전문가들은 중국이 비트코인을 꺼리고 있고 서방이 비트코인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현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

■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으로 국제원유 공급 우려 심화

- 후티 반군은 사우디 국영석유업체 아람코의 남부 홍해 인근 도시 제다의 석유 저장시설을 공격했다고 로이터통신 보도. 이에 따라 WTI 가격은 25일 1.4% 상승
-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공급부족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중동 지정학적 불안이 가세하여 공급부족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

■ 러시아 국방부, 푸틴 대통령이 설정한 목표 달성 때까지 우크라이나 군사작전 지속

- 아울러 러시아군 총참모부 작전총국장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을 장악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며,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큰 실수라고 언급

■ 유엔 안보리, ICBM 발사 관련 대북제재 강화 논의 착수

- 중 러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사국들은 북한의 ICBM 발사가 유엔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. 주유엔 미국대사는 기존 대북제재를 확실히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북 석유 공급량 상한선 추가 감소 등을 언급
-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는,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모든 유엔 회원국에 안보리 제재를 전부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3/25 현지시각 기준)

- 독일 3월 Ifo 지수(기업환경지수) : 90.8, 2월(98.5), 예상(94.2)
- 미국 3월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 : 59.4, 2월(62.8), 예상(59.7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31, E-mail jsob@kcif.or.kr